
국립국어원 소식

I.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1. 2011 어린이 한글 게임 대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제7회 어린이 주간을 맞아 우리말 학습 기능을 강화한 학습용 기능성 게임 ‘도깨비 대왕과 한글 수비대’를 완성하고, 초등학교 2,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4월 30일 삼정초등학교(강서구 방화3동 소재)에서 ‘2011 어린이 한글 게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게임 대회 중 띄어쓰기 게임을 하는 모습〉

행사 당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접수 인원 90명 중 89명(2학년 29명, 3학년 30명, 4학년 30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말 실력을 당당히 겨루었다.

학년별로 1시간씩 치러진 이번 게임 대회에서는 모두 27명(학년별 9명)의 수상자를 선발하였는데 으뜸상은 고원우(2학년 당중초), 권승민(3학년 치현초), 김민규(4학년 삼정초) 어린이가 차지하였다.

시상식은 5월 3일 국립국어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립국어원장은 시상식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고운 말 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으뜸상을 받은 고원우, 권승민, 김민규 어린이(왼쪽부터)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수상자와 학부모가 함께한 기념 촬영〉

2. 제1회 캐나다 오타와 지역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이 주최하는 ‘제1회 오타와 지역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 오타와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로서 40여 명의 한국어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6월 10일(금)과 6월 11일(토)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국립국어원의 파견단(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조항록 상명대 한국어학과 교수)은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 한국어의 어문 규범,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등급 차이 학습자 학급 교수법, 한국어 어휘 교육론과 교수법 등을 강의했다. 또한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 교원들과 학습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종학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국어원은 재외 문화원, 세종학당 등 매년 8~10개의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 내부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등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 현지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준 높은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어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2011년도 국립국어원 국외 한국어 전문가 파견 계획>

| 파견지 | 일정 | 강의 내용 |
|---------------------|-------------------|--|
| 중국 산둥대 위해 세종학당 | 5. 19. ~5. 20. | 한국어 읽기·듣기 교수법,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수법 |
| 중국 북경외대 세종학당 | 5. 28. | 한국어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국어 발음 지도법, 말하 기 교수법 |
| 베트남 호찌민대 세종학당 | 5. 21. ~5. 22. | 표준 발음법, 드라마나 뉴스를 활용한 교수법 |

| 파견지 | 일정 | 강의 내용 |
|--|-------------------|--|
|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 5. 28. ~5. 29. | 한글 교수법, 문화를 접목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읽기 발음 교수법 |
| 중국 상해 한국문화원 | 6. 10. ~6. 11. | 한국어 맞춤법(조선족, 북한식 발음 교정), 초급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학술회 참석 |
|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 | 6. 10. ~6. 11. | 한국의 언어, 한국어의 어문 규범, 한국어 어휘 교육론과 교수법,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실 운영 |
| NAKS 한국어 교육 전문 교사 양성 집중 연수회 (샌프란시스코) | 7. 12. ~7. 16. |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어문 규범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국제 한국학 교육 학술회 참석 |
|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 10. 8. ~10. 9. | 한국어 쓰기 교수법, 한국어 듣기 교수법 등 |
|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 10월 중 | 초급 문법 교수법, 문화를 접목한 한국어 교수법 등 |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2011년 제1회 원내 토론회 개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2011년 제1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주 제: 한글의 탄생
- 발표자: 노마 히데키(전 도쿄외국어대학교 교수)
- 일 시: 2011년 4월 25일(월요일) 16:00~18:00
-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쿄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과 교수를 지낸 노마 히데키 선생을 초청하여 ‘한글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였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이라는 책을 지난해 5월 일본에서 발간해 몇 주간이나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며 일본인들에게 한글을 알렸다. 이 책은 10월에 한국어 번역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한글의 탄생을 ‘지(知)=읽’이라는 큰 시야에서 본다. 이것은 에크리튀르(écriture) 혁명이다.”라는 명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한글을 연구할 때에는 ‘한글’이라는 개별적인 문자 체계의 탄생이 아니라 문자란 무엇인가, 언어음을 문자로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등의 의문을 갖고 한자·가나 문자·로마자 등과 대조 분석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글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음성 언어를 문자라는 시각적인 장치로 변환한 것이며 이것은 문자사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글의 창제가 ‘혁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또는 한자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글은 가나와 함께 음절 문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과연 한글을 음절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 노마 교수는 가나와 한글의 본질적인 차이는 음소에 있다고 보았다. 가나는 글자를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분리해 낼 수 없고, 글자 하나하나가 음절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글은 음절의 외부 경계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보여 준다. 로마자는 음소 하나하나를 표시하지만 음절의 외부 경계와 내부 구조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노마 히데키 교수는 가나는 ‘음절 문자’로 보고 한글은 ‘음절 구조 문자’로 구분해 다른 차원의 문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 책자에 관한 질문과 언어와 문자 교육을 할 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이 이어졌다.

2. 국립국어원 스마트폰용 ‘한국수화사전 앱(App)’ 개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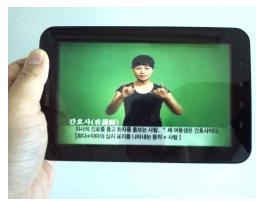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한국수화사전 앱(App)’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한국수화사전 앱’은 표준 수화 9,600여 개를 담고 있는 ‘한국수화사전’을 앱으로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책자나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수화사전 앱’은 책자와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수화 단어의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어 시작 자음에 따른 검색, 16가지 주제별 검색, 그리고 가장 많이 본 100개 단어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화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수화 정보에는 각 단어의 사전적 정의, 수화 동작 설명과 그림 설명이 들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글과 그림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수화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한국수화사전 앱’은 티스토리(T store)와 앱스토어(App store)에 등록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다.



〈16가지 주제별 사전 검색〉



〈한국수화사전 동영상 보기〉

3. 국립국어원, 방송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3-1. 지상파 방송 3사 일일 드라마 언어 조사

방송 3사의 일일 드라마에서 저품격 방송 언어가 드라마 한 회당 평균 4회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지난 4월 한 달간 각 방송사의 아침 드라마와 저녁 드라마 각각 4회씩(총 24회분량)의 방송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120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번에 주로 조사한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은어, 폭력적인 표현, 비표준어 등 저품격 언어 표현이다. 조사 결과, 비속어·은어 사용이 31%로 가장 많았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27%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속어와 인격 비하 표현 등의 사용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일 드라마에서는 가족이나 고부 관계, 사돈 관계 및 직장 동료 사이 등에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친한 사이에서 저품격 언어의 사용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사 례 | 개 선 안 |
|----------------|--|---|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 넌 그냥 계수 없는 자식일 뿐이야. (KBS1, '웃어라 동해야') | ▪ 넌 그냥 못된 사람일 뿐이야. (KBS1, '웃어라 동해야') |
| 비속어 · 은어 | ▪ 이런 <u>된장할</u> …… (SBS, '장미의 전쟁') ▪ <u>왕따</u> 돼 가지고 완전 떡 됐지. (KBS2, '사랑하길 잘했어') | ▪ 이런 <u>젠장할</u> …… (SBS, '장미의 전쟁') ▪ <u>따돌림</u> 받고 정말 바보 됐지. (KBS2, '사랑하길 잘했어') |
| 폭력적인 표현 | ▪ 그런 헛소리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그때는 <u>죽여 버릴 줄 알아</u> . (MBC, '남자를 믿었네') | ▪ 그런 헛소리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그때는 <u>정말 혼날 줄 알아</u> . (MBC, '남자를 믿었네') |

저녁 드라마보다 아침 드라마의 저품격 언어 사용 사례가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녁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고, 시청 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속어 및 인격 비하, 폭력적 표현 등이 상당수 조사되었는데, 이런 저속한 표현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실제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과급력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상파 방송에서만큼은 피해야 할 것이다.

3-2. 가정을 소재로 한 주말 드라마 언어 조사

국립국어원은 지난 5월, 각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 한국방송공사(KBS) 2TV '사랑을 믿어요(조정선 극본)', 문화방송(MBC) '반짝반짝 빛나는(배유미 극본)', '내 마음이 들리니(문희정 극본)', 에스비에스(SBS) '내 사랑 내 곁에(김사경 극본)', '신기생던(임성한 극본)' 총 다섯 편의 1회분(5월 15일(일) 방송분, 각 70분 분량) 방송 언어를 분석한 결과, 39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화방송의 '반짝반짝 빛나는'과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의 사용과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은어·유행어, 폭력적인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등을 대분류로 삼았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12건으로 전체의 30.7%,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과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각각 11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국립국어원은 가족 간에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과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 주말 드라마가 시청자 가정 내에서의 언어 사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형 | 사 례 |
|----------------|--|
|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언제까지 <u>내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u> (MBC, 내 마음이 들리니, 최진철 역) ▪ 성질 급하더니 <u>치매 속도도 빠르네.</u> (MBC, 내 마음이 들리니, 김신애 역) |
| 비속어 · 은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이라도 좀 <u>쌌벼오지.</u> 이게 뭐냐, 이게. (MBC, 반짝반짝 빛나는, 황남봉 역) ▪ <u>남친</u>을 택하느냐 다시 마 대표를 택하느냐. (SBS, 신기생던, 노은자 역) |
| 폭력적인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 아버지 어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u>꼭 쏘서 죽이고 싶더라구.</u> (KBS, 사랑을 믿어요, 혜진 모 역) ▪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면 <u>죽어 버려.</u> (SBS, 내 사랑 내 곁에, 배정자 역) |
| 불필요한 외래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원래 네 말대로 부모님들 <u>킬러</u>잖아. (KBS, 사랑을 믿어요, 윤지수 역) ▪ 몰라서 묻냐? <u>레벨</u>이 다르잖아. (MBC, 내 마음이 들리니, 식물원 소장 역) |

현재 주말 저녁 드라마의 시청 등급은 1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 연령층에 열려 있다. 그러므로 ‘성질 급하더니 치매 속도도 빠르네,’처럼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치매의 악화 속도가 빠른 것은 어머니의 성격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딸의 표현이나 ‘대체 언제까지 내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와 같이 함께 생활을 유지하는 부인이 자신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가족 구성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제작진은 출연자의 언어 사용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국어원은 지적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해당 방송사 제작진에게 보내 앞으로 방송 제작에서 이러한 표현을 개선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방송 언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송 언어의 품격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4-1. ‘에코드라이브(eco-drive)’는 ‘친환경운전’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에코드라이브(eco-drive)’와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의 다듬은 말로 ‘친환경운전’을 최종 선정하였다. ‘에코드라이브(에코드라이빙)’는 ‘친환경, 경제성, 안전을 고려한 운전 및 그러한 운전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에코드라이브(에코드라이빙)’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57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친환경알뜰운전’, ‘친환경절약운전’, ‘환경사랑운전’, ‘친환경운전’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7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친환경알뜰운전’은 290명(19%), ‘친환경절약운전’은 335명(22%), ‘환경사랑운전’은 211명(14%), ‘친환경운전’은 637명(43%)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친환경운전’이 ‘에코드라이브(eco-drive)’와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2.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끝장승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의 다듬은 말로 ‘끝장승부’를 최종 선정하였다. ‘치킨게임’은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치킨게임’을 갈음할 우리말로 누리꾼이 제안한 370건 가운데, ‘벼랑끝싸움’, ‘극단대립’, ‘끝장승부’, ‘막장대결’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61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637명(39%)이 지지한 ‘끝장승부’가 ‘치킨게임’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3. ‘러브샷(love shot)’은 ‘사랑건배’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러브샷(love shot)’의 다듬은 말로 ‘사랑건배’를 최종 선정하였다. ‘러브샷’은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엇갈리게 걸고 건배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누리꾼이 제안한 395건 가운데, ‘잉꼬건배’, ‘팔걸이건배’, ‘사랑맞잔’, ‘사랑축배’, ‘사랑건배’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3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560명(36%)이 지지한 ‘사랑건배’가 ‘러브샷’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4. ‘올킬(all kill)’은 ‘씩쓸이’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올킬(all kill)’의 다듬은 말로 ‘씩쓸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올킬’은 연예, 게임, 스포츠 등에서 ‘석권(席卷, 席卷)’, ‘전승(全勝)’ 등을 이르는 말이다.

누리꾼이 제안한 322건 가운데, ‘씩쓸이’, ‘휩쓸이’, ‘관쓸이’, ‘완승’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60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874명(54%)이 지지한 ‘씩쓸이’가 ‘올킬’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5. ‘오버페이스(over pace)(하다)’는 ‘무리(하다)’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오버페이스(over pace)(하다)’의 다듬은 말로 ‘무리(하다)’를 최종 선정하였다. ‘오버페이스’는 ‘운동 경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능력이나 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오버페이스(하다)’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01건 가운데, ‘무리(하다)’, ‘과속(하다)’, ‘과육(부리다)’, ‘능력초과(하다)’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94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1,112명(57%)이 지지한 ‘무리(하다)’가 ‘오버페이스(하다)’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6.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바리스타(barista)’의 다듬은 말로 ‘커피전문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바리스타’는 ‘커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즉석에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이르는 말이다.

‘바리스타’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85건 가운데, ‘커피맛지기’, ‘커피장인(--匠人)’, ‘커피조리사’, ‘커피전문가’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97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1,044명(52%)이 지지한 ‘커피전문가’가 ‘바리스타’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4-7. ‘포커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포커페이스(poker face)’의 다듬은 말로 ‘무표정’을 최종 선정하였다. ‘포커페이스’는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이르는 말이다.

‘포커페이스’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618건 가운데, ‘가면얼굴’, ‘감춘낫’, ‘무표정’, ‘시치미얼굴’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66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816명(48%)이 지지한 ‘무표정’이 ‘포커페이스’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5. 제9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96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4. 22.)

[인 명]

- 가우방, 안드레 André Galvão 1982~ 브라질 이종 격투기 선수.
- 갈리아노, 존 John Galliano / 본명: 후안 카를로스 안토니오 가이아노 기엔 Juan Carlos Antonio Galliano-Guillén 1960~ 영국 패션 디자이너. 프랑스 고급 의상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수석 디자이너(1996~2011. 3.).
- 니서키, 마틴 Martin Nesirky ?~ 유엔사무총장 대변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변인(2009. 11.~). 영국 국적.
- 데일리, 그레첸 Gretchen C. Daily ?~ 미국 여성 생물학자. 스탠퍼드대 교수.
- 디레스타, 폴 Paul di Resta 1986~ 영국 에프원(F1) 선수. 스코틀랜드인.
- 레이디 가가 Lady Gaga / 본명: 스테파니 조앤 앤젤리나 제르마노타 Stefani Joanne Angelina Germanotta 1986~ 미국 가수·작사가.
- 루멧, 시드니 Sidney Lumet 1924~2011 미국 영화감독. 1957년 헨리 폰다(Henry Fonda) 주연의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
- 모포, 안나 Anna Moffo 1932~2006 미국 성악가. 소프라노 가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인(Wayne)에서 이탈리아인 부모에게서 출생.
- 무어, 게리 Gary Moore 1952~2011 영국 록 기타 연주자·작곡가·프로듀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1970년 전반 신 리지(Thin Lizzy)에 가입, 그 후 솔로로 활약.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오지 오즈번(Ozzy Osbourne) 등 유명 뮤지션과 공연. 대표작은 스틸 갓 더 블루스

(Still Got The Blues).

- 바르샤이, 루돌프 (보리소비치) Rudolf (Borisovich) Barshai 러시아어명: Рудольф Борисович Баршай 1924~2010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비올라 연주자. 비올라 주자로 현악 4중주단에서 활약하다가 5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관현악단을 지휘. 쇼스타코비치(Dmitrii Shostakovich)의 교향곡 전집을 완성시켜 명성을 얻음.
- 분더리히, 프리츠 Fritz Wunderlich / 본명: 프리드리히 카를 오토 분더리히 Friedrich Karl Otto Wunderlich 1930~1966 독일 성악가. 테너 가수.
- 술라이만, 우마르 Sumar Sulaymān [Omar Suleiman] 아랍어명: عمر سليمان 1936~ 이집트 정치가. 부통령(2011. 1.~). 국가정보국국장(EGIS)(1993~2011).
- 야하가, 아티페테 Atifete Jahjaga 1975~ 코소보 정치가. 여성 대통령(2011. 4.~). 전 경찰 간부.
- 오즈번, 오지 Ozzy Osbourne / 본명: 존 마이클 오즈번 John Michael Osbourne 1948~ 영국 가수 겸 작곡가. 영국 헤비메탈 밴드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 전 리드 보컬리스트(1968~1979).
- 저우하이잉 周海嬰 Zhōu Hǎiyīng 1929~2011 중국 정치가. 전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국무원 방송·영화·텔레비전 성(省) 정책연구실 연구원. 문호(文豪) 루쉰(魯迅)의 외아들.
- 카르티케얀, (쿠마르 람) 나렌 (Kumār Rām) Narēn Karttikēyan 타밀어명: கும்மார் ராம் நரேன் கார்த்திகேயன் 1977~ 인도 예프윈(F1) 선수.
- 카메리노, 줄리아나 (코엔) Giuliana (Coen) Camerino 1920~2010 이탈리아 여성 패션 디자이너. 1945년 베네치아에 패션 하우스 '로베르타 디 카메리노(Roberta di Camerino)'를 설립.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미국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등의 유명인이 그의 제품을 애용함.

- 탄타위, 무함마드 후사인(, 술라이만) Muḥammad Ḥusayn Ṭanṭāwī (Sulaymān) [Mohamed Hussein Tantawi (Soliman)]
아랍 어명: محمد حسين طنطاوى سليمان 1935~ 이집트 정치가. 이집트군 최고평의회 의장. 국가 원수(元首). 육군 원수(元帥). 국방장관(1991. 5.~) 겸 부총리(2011. 1.~).
- 프라이, 그레이엄 (홀브룩) Sir Graham (Holbrook) Fry 1949~ 영국 정치가 · 외교관. 런던대 연구 기관의 평의원(評議員)(2008~). 주일본 대사(2004~2008). 말레이시아 고등판무관(1998~2001).
- 혹버그, 프레드 Fred P. Hochberg 1951~ 미국 실업가. 수출입은행 총재(2009. 5.~).

[재심의]

- 릭터, 버턴 Richter, Burton 미국의 물리학자(1931~).
- 마르티니, 귀도 Guido Martini 주한 외국 대사 - 이탈리아.
- 블레어, 토니 Blair, Tony / 본명: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 Anthony Charles Lynton Blair 영국 정치가(1953~).
- 셋 시라주딘 셋 푸트라 자말룰라일 Syed Sirajuddin Syed Putra Jamalullail 말레이시아의 제12대 국왕(1943~).
- 우드워드, 숀 앤서니 Woodward, Shaun Anthony 영국 정치가(1958~).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2011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1-1. 2011년 4~6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4월(제241기, 제242기), 5월(제243기, 제244기), 6월(제245기, 제246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1) 교육 기간

- 제241기: 2011년 4월 11일(월)~4월 15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2기: 2011년 4월 18일(월)~4월 22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3기: 2011년 5월 16일(월)~5월 20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4기: 2011년 5월 23일(월)~5월 27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5기: 2011년 6월 13일(월)~6월 17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46기: 2011년 6월 20일(월)~6월 24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2)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3)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르게 쓰기, 보고서 작성법, 생활 글쓰기

1-2. 2011년 국어전문교육과정 하계 교사 직무 연수 운영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하계 교사 직무 연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목적

교사들에게 바른 어문 규범을 익히게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주변의 언어 환경을 살펴 올바른 언어 의식을 기르도록 함.

2) 연수 종별/과정명: 직무 연수(5일 과정 30시간)/국어전문교육과정

3) 연수 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 과정(교과 지도)

4) 연수 기간

- 1기: 2011. 7. 25.(월)~7. 29.(금) (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 2기: 2011. 8. 1.(월)~8. 5.(금) (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5) 연수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6) 연수 대상: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160명
(이 과정을 수료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함.)

7) 연수 경비: 5만 원

8) 평가 여부: 평가 안 함.

9) 교육생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지역별(광역자치단체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별 인원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선정.

10) 과정 내용(교과목/교수 요목/시수)

- 한글 맞춤법 이론: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1강좌/100분)
- 특강(우리말 가르치는 일의 무게): 쉬운 우리말의 사용이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바탕임에 대한 이해 심화, 우리말 애호 태도 함양.(1강좌/100분)
- 특강(시어와 민족어 완성의 길): 현대시 주요 작품 감상을 통해 민족어 자산의 풍부화, 섬세화에 이바지해 온 시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1강좌/100분)
- 띄어쓰기: 조사, 의존 명사, 관형사, 보조 용언 등 띄어쓰기의 원리를 익힘.
(1강좌/100분)
-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의 원리 이해하기, 모음이나 받침의 발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변화에 따른 표준 발음의 원리.(1강좌/100분)

- 표준어 규정: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규정의 실제, 자주 틀리는 사례 알기.(1강좌/100분)
-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등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봄.(1강좌/100분)
- 우리말 다듬기: 국어 순화에 대한 바른 이해(필요성, 대상, 범위, 효과, 방법, 접근 태도), 국어 순화의 전개 과정,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변형된 국어,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 북한의 국어 순화.(1강좌/100분)
- 한글 맞춤법의 실제: 맞춤법에서 틀리기 쉬운 말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익힘.(1강좌/100분)
- 학교 생활문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가정 통신문, 생활 기록부 등의 작성 시에 필요한 언어 표현을 익힘.(1강좌/100분)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의 특징,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1강좌/100분)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전사법과 전자법의 구별, 현행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1강좌/80분)
- 구별해야 할 말: 발음, 형태, 의미가 비슷한 말 구별하기(한글 맞춤법 제 57장의 예들과 일부 한자어들).(1강좌/50분)
- 문장 바로 쓰기: 문법적인 문장, 의미 전달에 충실한 문장, 주어와 목적어의 누락, 주어와 서술어 관계의 불일치, 조사의 오용,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문장 등 바른 문장의 요건.(1강좌/100분)
- 협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효과적으로 듣기(공감적 경청), 효과적으로 말하기(대화의 원리, 정중 화법 등).(1강좌/80분)
- 시청각 학습: 한글 창제의 배경을 당시 정세와 국정 운영에서 찾은 MBC 2005년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CEO 세종'이라는 시청각 자료 학습.(1강좌/70분)
- 쪽지 시험: 교육 전 1회, 교육 후 1회 쪽지 시험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함.(1강좌/50분)

2. 국립국어원 제4기 국외통신원 모집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와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양한 국외 언어 정책 동향과 한국어 교육 현황 소식을 전할 국립국어원 제4기 국외통신원을 모집했다.

1) 추진 목적

- 국외 정책 사례 수집: 국외 언어 정책 기관의 운영 사례와 주요 사업 및 연구 결과 동향 수집, 현지 한국어 교육 현황 소개 등.
- 언어 정책 전문가 육성: 각국 유학생의 언어 정책 조사 및 행사 취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언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국외 언어 정책 네트워크 마련.

2) 통신원 모집 개요

- 통신원 활동 기간: 2011년 하반기(2011년 7월~12월)
- 선발 규모: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국외 거주자 6명 내외
- 자격 요건
 - 국외 현지에 거주하며 언어·외국어·한국어 교육 등 관련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 이상)
 - 현지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기획력과 기사 작성 능력 및 사진·동영상 편집 등 매체 활용 능력을 갖추고 성실한 취재 활동이 가능한 자
 - 블로그 운영 등 그동안 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 부여
- 활동 내용
 -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취재 원고 1편, 자료 조사 1편씩 의무 제출
 - 취재 원고: 언어 정책, 주요 학계 동향 및 연구 내용, 언어 정책

- 및 연구 기관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행사 취재
- 자료 조사: 국어원이 요청하는 정책 사례 조사
 - (월별 특정 주제 선정)
 - 원고뿐 아니라 취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국립국어원 국외 현지 조사 및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시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가능
 - 통신원 혜택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및 활동 증명서 발급
 - 소정의 원고료 지급, 우수 통신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활동 연장 (제출된 원고는 내부 평가를 통해 원고료 차등 지급)
 - 활동 원고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등에 소개
 - 취재 내용 관련 국어원 연구 결과물 등 관련 자료 제공